

[종합설계1][02] 디자인 스프린트 3주차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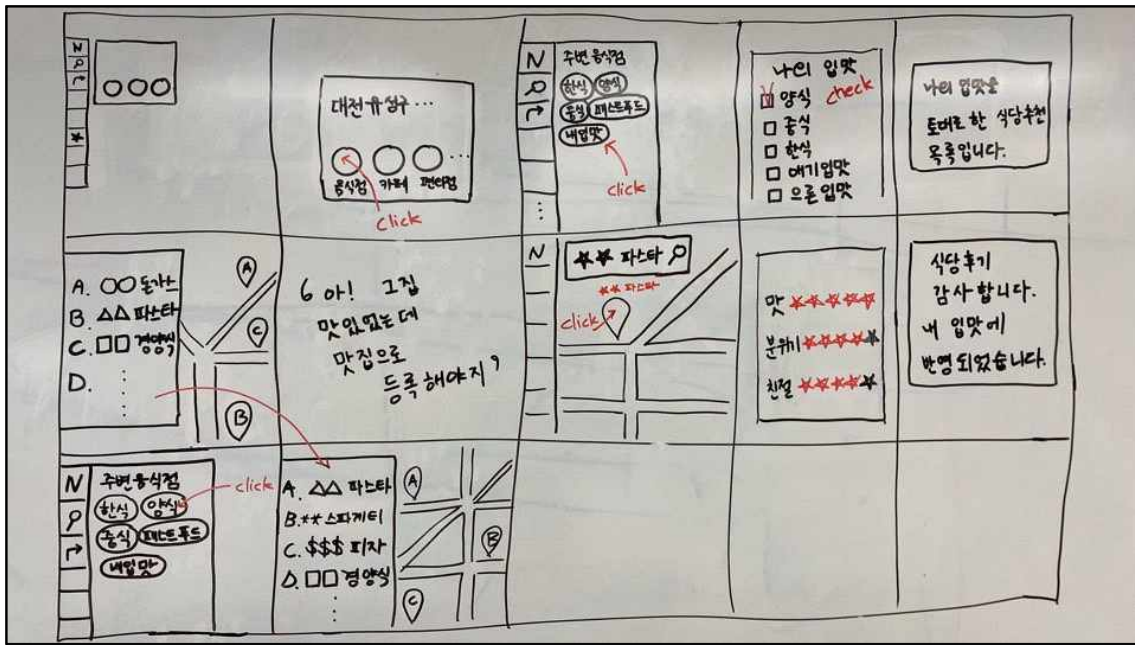
테라피_201604145_이문영

1. 과제 해결 과정

3월 30일 스프린트 3주차 수업을 듣고 나서 각종 지도 맵을 주제로 한 조끼리 설문조사를 공유하는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조 박재욱 팀장이 수업 끝나고 바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올렸고 4월 1일까지 조사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4월 1일 팀원들과 학교에서 만나 스토리보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각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2. 스토리보드



스프린트 2주차에 저희는 그동안 나온 질문들은 통합하며 6개의 질문으로 간추렸습니다. 그 질문들을 토대로 각자 6가지의 솔루션을 제안했고 설문조사와 조원들끼리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어떻게 하면 식당들이 내 입맛에 맞게 정렬될까?”라는 질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질문을 선택한 된 기준은 첫 번째로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개인의 조원이 정말 서비스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추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기준을 조합한 결과 6개의 질문 중 1번이 질문과 그에 대한 솔루션이 채택되었습니다.

스토리보드의 각 화면에 대해 설명하자면

1번: 처음 지도 서비스의 메인 화면을 나타냅니다.

2번: 음식점 버튼을 클릭하는 상황입니다.

3번: 음식점 서비스 화면이 나오고 그 중 “내 입맛”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번: “내 입맛”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각자의 입맛에 대해 간단한 설문을 작성하면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 맵기, 짜기, 달기 등을 개인 입맛에 맞게 선택하게 됩니다.

5번: 설문을 마치고 나서 설문을 토대로 제공되는 식당 목록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6번: 설문을 토대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나타난 주변의 식당 목록들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7번: 사용자가 기존에 가봤던 식당을 등록하고자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8번: 리뷰를 등록하고자 하는 식당의 이름을 검색하고 식당을 클릭하여 리뷰를 작성합니다.

9번: 리뷰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리뷰에는 맛, 분위기, 친절의 항목이 있고 사용자는 그 항목들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10번: 식당 리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띄워주는 화면입니다.

11번: 다시 음식점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화면이 나오고 사용자는 원하는 음식의 종류를 고르게 됩니다.

12번: 사용자가 고른 음식의 종류에 해당하는 음식점 추천 목록이 update 됩니다. 사용자가 자신이 이용했던 식당에 대해 리뷰를 등록하기 전이라며, 설문지에 작성된 입맛을 토대로 추천 목록이 작성되고, 이용했던 식당들에 대해 리뷰를 했다면 사용자가 리뷰했던 식당에 같이 리뷰를 한 다른 사용자가 리뷰한 식당들을 추천하여 식당목록이 작성됩니다.